

편그라운드 진접 청소년운영위원회 제안서

제안일시

2022. 12. 17

작성 자

김세린

제안명

6개월 동안 지켜본 편그라운드 제안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편그라운드 진접 청소년운영위원회입니다.
저희는 2022년 7월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편그라운드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프로그램도 보고 참여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서를 씁니다. 편그라운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았고, 재밌는 프로그램들도 많았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직접 얘기해보고 싶어요.

1. 직업체험 프로그램,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모름 학교에서 직업체험 기회가 너무 부족해요.

진접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잔 안드해서 참여하기 어려웠고

진접고등학교랑 광동고등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라구요

그래서 편그라운드에서 더 자극, 더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어요.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보는게 훨씬 재밌고 기억에 남거든요. 저희도 진로 고민이 많은 시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청소년 유관기관이랑 같이 하는 축제 하고 싶어요.

편그라운드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나 청소년 단체랑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직접 기획하는 축제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청소년 기획단을 모전해서 저희 아이디어도 준비하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리액사회, 주민들여랑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요!

그렇게 하면 편그라운드도 더 완제지고 저희도 보드한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진짜 의미있을 것 같아요.

3. 비록은 문화체험 활동 더 풍부해요.

연극이랑 마술쇼처럼 볼 프로그램도 재밌긴 한데

속직히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문화활동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같이 무대에 오르거나 만들기 체험 같은 거요.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그런 기회가 아직 적은 거 같아서 아쉬워합니다.

결정사항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해결 방안: 위원장님 의견, 행정진행과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결정함, 한두명만 축제 시키는 문화체험을 가족 만들어줍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7m 전이어서 각 위원회까지 전달합니다.